가로 활성화를 위한 가로변 노천카페의 유형별 설계요소 평가

김동찬*, 최우영**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조경학과

An Evaluation of Design Factors with Sidewalk Cafes for Street Revitalization

Kim, Dong-Chan*, Choi, Woo-Young**

*College of Art and Design, Kyung Hee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types of sidewalk cafes, and to evaluate design factors with types of sidewalk cafes for street revitalization. Consequently, it may suggest efficient and systemic policies for the guidelines of sidewalk cafes. To ensure this end, the types of sidewalk cafes were categorized from the street relationship perspective by site investigation. A literature review and importance analysis were used to select the evaluation criteria,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 methods such as descriptive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As a result, five main factors of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contracted: accessibility, aesthetics, identity, environmental, culturedness. Cumulative factor loading of these five factors was 68.731%, which was quite high. And the evaluation using the Likert scale was performed by 4 experts. Types of sidewalk cafes were categorized into 5 types: protruding, gating, blending stereoscopic, elevation angle, and sign provision from the street relationship perspective. On the evaluation by type, aesthetics and culturedness were the worst evaluated in the protruding type and the gating type, culturedness was the worst in the blending stereoscopic type, accessibility, aesthetics, culturedness were the worst in the elevation angle type, and accessibility, identity, culturedness were the worst in the sign provision type. On the evaluation by the indicators, culturedness was the worst evaluated, and on the evaluation by criteria, 'safety for impaired persons', 'interest of programs', 'openness of entrance' were the worst. It is recommended that a survey of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cused on users be conducted.

Key Words: Guidelines of the Sidewalk Café, Garosoo-street, Samcheongdong-street, Evaluation Criteria, Factor Analysis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노천카페의 유형을 분류하고,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유형별로 평가함으로써 추후 노천카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로와의 관계성 관점에서 노천카페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가로변 노천카페의 전수조사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평가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와 중요도 조사가 사용되

Corresponding author: Woo-Young Choi,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Kyung Hee University, Yongin 446-701, Korea, Tel.: +82-31-201-2635, E-mail: woorung97@khu.ac.kr

었고, 데이터의 분석에는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등과 같은 통계방법들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노천카페의 유형은 가로와의 관계성 관점에서 가로돌출형, 가로개폐형, 혼합입체형, 가로양각형, 사인제공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평가항목의 5개 요인은 접근성, 심미성, 정체성, 환경성, 문화성이었는데, 이 5개 요인의 누적기여율은 68.731%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평가항목을 토대로 조경 전문가 4인이 5점 리커트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유형별 평가 결과, 가로돌출형과 가로개폐형은 ‘심미성’과 ‘문화성’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고, 혼합입체형은 ‘문화성’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가로양각형은 ‘접근성’, ‘심미성’, ‘문화성’, 사인제공형은 ‘접근성’, ‘정체성’, ‘환경성’의 점수가 낮았다. 지표별 평가 결과, ‘문화성’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고, 항목별 평가 결과, ‘장애인의 안전성’, ‘프로그램의 흥미성’, ‘출입의 개방성’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요구와 관심은 높지만 연구가 미흡한 분야인 노천카페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평가를 수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로변의 노천카페만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의 노천카페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가 평가를 시행하였으므로 추후 이용자 입장에서의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노천카페 가이드라인, 가로수길, 삼청동길, 평가항목, 요인분석

I. 서론

가로변 노천카페는 최근 상업가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김도년, 2011), 노천카페에 대한 전문가 또는 일반인의 인지도, 관심도, 이용도 등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김동찬과 최우영, 2013). 이것은 Nan Ellin이 완벽한 도시(Integral Urbanism)의 5가지 성질(5 qualities)의 하나로서 투과성(porosity)을 강조한 바와 같이(Nan Ellin, 2006), 노천카페가 경관을 감상하는 동시에 경관을 형성하는 장소로써 가로에 매력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도시는 이러한 노천카페를 지역 어메니티 증진 요소로 선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노천카페에 대한 요구와 의지는 높지만,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권장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김도년, 2012).

국내에서 최근 가로변에 조성되는 노천카페들은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 대지 내 공지뿐 아니라, 보도 일부를 사용하는 사례까지 발생되어 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내용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¹⁾. 그로 인해 신축되는 건물들은 대지 내부의 건축물 전면에 노천카페를 조성할 목적으로 1층을 셋백하는 디자인을 취하는 형태가 다수 나타나기도 한다(김도년, 2011: 43). 서울시에서는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로활성화의 요인으로써 건물전면공간이나 공개공지에 관한 연구(김주석 등, 2002; 엄봉훈, 2011; 이승희, 2007; 우동주, 2008; 정창구 등, 2008; 김도경과 김진영, 2011; 박철순, 2012), 가로환경시설물에 관한 연구(이나영, 2002; 이득구, 2004; 박태희와 서주환, 2005; 송호진, 2008; 조원석, 2009; 장광집, 2010), 이용자 의식에 관한 연구(김기수,

2008; 김기수와 김중섭, 2010) 등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로 활성화 요인의 하나로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천카페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김동찬과 최우영(2013)이 이용자와 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노천카페의 설계요소를 분석한 것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노천카페의 유형을 분류하고, 평가기준을 도출한 후, 유형별로 평가·분석함으로써 추후 노천카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카페거리로 불리는 서울의 가로 중 가로수길, 삼청동길 등 2개 가로의 가로변 노천카페이다. 가로수길은 도산대로와의 교차점부터 압구정로까지 655m로 폭 8~9m, 보도폭 3~3.5m이고, 삼청동길은 팔판동 삼거리에서 삼청터널까지 800m로 폭 10~14m, 보도폭 2~3.5m이다. 이처럼 가로수길과 삼청동길은 총길이, 폭, 보도폭 등 물리적 현황이 비교적 유사한 거리로 유형별 평가 시에 주변현황에 의한 영향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2개의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가로별 노천카페 현황 조사결과, 가로변 전체 카페 수 대비 노천카페 비율은 가로수길 64%, 삼청동길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가로별 가로변 노천카페 현황

구분	카페수(개)	노천카페수(개)	노천카페율(%)
가로수길	25	16	64
삼청동길	28	18	64

내용적 범위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노천카페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례조사를 통하여 가로변 노천카페의 유형을 분류하며, 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가로변에 위치한 노천카페 설계요소의 평가기준을 도출한 후, 도출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1) 노천카페 유형분류

노천카페의 유형은 가로와의 관계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였고, 이에 기존의 국내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노천카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으로 유형구분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가로변의 업종과 가로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여(차호철과 박철민, 2011) 이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유형별 개수와 비율을 분석하였다.

2) 평가기준 선정

평가기준의 선정은 국내 선행연구 및 해외 가이드라인 등 문헌조사를 통해 1회 이상 언급된 평가 또는 설계항목을 모두 추출하였는데, 활용된 문헌은 국내연구 10편(김세용과 양동양, 1997; 김혜경, 1997; 최희원 등, 2002; 정창구, 2004; 장하리와 이인성, 2006; 김기수, 2008; 우동주, 2008; 호창기, 2008; 김기수와 김중섭, 2010; 채두병 등, 2010)과 해외 가이드라인 4개 도시(김도년, 2011)였다. 이때 국내 연구는 노천카페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노천카페가 주로 위치하며 가로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간인 건물전면공간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해외 가이드라인은 미국 뉴욕, 미국 레드우드시티, 호주 시드니, 영국 출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외 도시 선정 이유는 노천카페 관련 법 제도 및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노천카페 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천카페의 활용을 통해 도시 활력 및 가로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로서 대표되고 있기 때문이다(김도년, 2011).

위에서 추출된 항목들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차 전문가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3점 이상을 나타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 평가항목에 대하여 5점 리커트 방식으로 2차 전문가 중요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기술통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그룹에 적합한 용어로 명명함으로써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최종 평가틀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단순무작위표본 추출에 의해 조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직접 면담설문, E-mail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데, 총 130부 중 125부를 채택하여 SPSS 20.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주된 통계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등이 활용되었다.

조경 전문가를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가로 활성화 수단으로써의 노천카페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가로에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녔고, 추후 가로 조성 계획 및 노천카페 가이드라인 도입에 참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조경 연구 분야 및 실무 분야 종사자를 고르게 선정하였다.

3) 유형별 평가

유형별 평가는 지표평가와 항목평가로 나누어 분석하고, 좌표파형으로 나타냄으로써 유형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항목평가는 우선 모든 노천카페 사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같은 유형의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그 유형의 개수로 평균을 내어 도출하였고, 지표평가는 지표에 속한 항목들의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을 내어 도출하였다.

평가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경 실무 경력 5년 이상 전문가 4인이 3회 이상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요소를 토대로 5점 리커트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며, 엑셀과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이론적 고찰 및 현황분석

1. 노천카페의 개념

노천카페의 사전적 개념은 건물 밖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손님들이 간단한 차와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하였고²⁾, 김도년(2011)은 음료 식사가 제공되는 모든 야외 좌석이라고 하였다. 해외 도시의 노천카페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 뉴욕은 간이 테이블과 의자, 난간과 파라솔 등의 시설과 접을 수 있는 어닝을 제외한 지붕이 없는 카페라고 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시티는 레스토랑, 바, 카페가 운영되는 야외공간(공공보도)에 조성되어 유지되는 카페라고 하였고, 호주 시드니는 카페, 식당에서 음료 또는 식사가 제공되는 모든 야외좌석이라고 하였으며, 영국 출리는 공공보도에 조성되는 노천카페 영역이라고 하였다(김도년, 2011).

본 연구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노천카페 설계요소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로변에 위치한 노천카페로 한정 지으며, “카페, 식당 등에서 건물 전면, 테라스, 옥상 등 옥외로 확장하여 음료,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 또는 건물에 부속한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이용자가 야외공간으로 인식하는 장소로서, 가로변 대지경계선 안쪽에 위치하는 모든 공간”으로 정의한다. 다만 대지경계선 바깥쪽인 공공보행통로(보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용어의 정리

2. 해외 노천카페 가이드라인

해외 도시들은 지역의 어메니티를 증진시키는 요소로써 노천카페를 권장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뉴욕,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시티, 호주 시드니, 영국 출리는 노천카페의 활용을 통해 도시 활력 및 가로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다. 각 도시 가이드라인 내용을 항목으로 유형화하면 표 2와 같다(김도년, 2011).

IV. 결과 및 고찰

1. 노천카페의 유형분류

노천카페의 유형은 가로와의 관계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표 2. 해외 도시 가이드라인 내용의 항목 유형화

내용	항목의 유형화
<p>[미국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보행로는 2.4m 이상으로 한다. • 노천카페영역 최소기준 1.37m² 이상으로 한다. • 장애인인 직접 진입로를 설치한다. • 구조물을 제외한 벽, 창문은 무색·무반사의 투명재료를 사용한다. • 구조물은 폭 0.25m 이하로 한다. • 가로변 벽면은 50% 이상 열고 닫는 투명창으로 한다. •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등의 일체의 음향은 불허한다. • 바닥단차를 불허하며, 어떤 종류의 바닥마감도 영역에서 배치할 수 없다. • 난간 설치시 높이는 80cm 미만으로 하며, 이동식으로 제한하고, 50% 이상 투명재료를 사용한다. • 차양을 설치하며, 높이는 2.1m 미만으로 한다. • 경계는 바닥에 모서리만 부분만 표기한다. • 시설물을 바닥에 고정하는 것이 불가하며, 운영시간 외에는 철거하여야 한다. • 인접카페와 최소 거리는 12m 사이를 유지하여 연계성을 높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보도폭 확보 최소 카페폭 확보 장애인 접근성 실내 투과성 실내와의 연계성 차음 기능성 출입의 안전성(단차) 출입의 개방성(난간) 차양 기능성 시설물 철거성 인접카페와의 연계성
<p>[미국 레드우드시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보행로는 1.5m 이상으로 한다. • 노천카페영역은 최소기준 1.5m로 한다. • 출입구 반경 1.5m 공간을 장애물이 없이 유지한다. • 테이블과 좌석의 재료는 같고, 견고한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한다. • 테이블의 좌석은 4개 이하로 하고, 라운드테이블은 1/2 이하, 사각테이블은 2ft 이하로 넓이를 제한한다. • 난간은 이동식으로 제한하며, 경계는 식재박스, 화분 등이 가능하다. • 시설물은 고정 불가하며, 카페 운영시간 외에는 철거하도록 한다. • 식재 1.2 높이로 제한하며, 식재박스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계절을 고려한 식재를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보도폭 확보 최소 카페폭 확보 출입의 안전성(단차) 시설물 심미성 출입의 개방성(난간) 시설물 철거성 자연요소의 녹음성
<p>[호주 시드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보행로는 2m 이상으로 한다. • 노천카페영역 최소폭은 1m이다. • 개방감 조성을 위해 어떤 입면도 불허한다. • 난간을 불허하며, 영역 경계로는 식재 사용이 가능하다. • 차도 쪽 테이블은 의자의 등이 차도 쪽으로 향할 수 없다. • 시설물은 고정이 불가하며 운영시간 외에는 철거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보도폭 확보 최소 카페폭 확보 출입의 안전성(단차) 출입의 개방성(난간) 자연요소의 녹음성 시설물 철거성
<p>[영국 출리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보행로는 2m 이상으로 한다. • 노천카페영역 최소기준 2m² 이상으로 한다. • 일체의 음향을 불허한다. • 난간이 도시경관과 연속성을 이루도록 한다. • 시설물 품질을 고품질화하고, 재질을 통일하며,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를 불허한다. • 흡연석을 불허한다. • 승인된 시간 이외에는 모두 철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보도폭 최소 카페폭 차음 기능성 시설물 조화성 시설물 철거성

표 3. 가로와의 관계성에 따른 노천카페의 유형 (단위: 개)

	유형	가로수길	삼청동길	종합
가로 돌출형		4	7	11(32.3%)
가로 개폐형		5	2	7(20.5%)
혼합 입체형		3	4	7(20.5%)
가로 양각형		2	1	3(8.8%)
사인 제공형		2	4	6(17.6%)
노천카페 총수		16	18	34(100%)

목적으로 하였다. 차호철과 박철민(2011)은 가로와의 관계성에 따른 업종 구분에서 가로와의 관계성을 가로돌출형(아주 높음), 외관개방형(높음), 내부조망형(보통), 사인제공형(낮음)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를 참조하여 노천카페의 유형을 가로와의 관계성에 따라 가로돌출형, 가로개폐형, 혼합입체형, 가로양각형, 사인제공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의 설명은 표 3과 같다.

노천카페 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가로돌출형은 11개(32.3%), 가로개폐형은 7개(20.5%), 혼합입체형 7개(20.5%), 가로양각형 3개(8.8%), 사인제공형 6개(17.6%)로 가로돌출형, 가로개폐형과 혼합입체형, 사인제공형, 가로양각형 순이었다(표 3 참조).

2. 최종평가틀 도출

1) 문헌 연구

문헌연구는 국내의 연구문헌 및 해외의 도시별 가이드라인에 1회라도 언급된 내용을 모두 통합하여 정리하였는데, 총 33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선정된 평가지표들의 경우 의미가 유사한 지표를 각기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다 객관적 지표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중요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점 미만의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중요하게 판단되지 않은 항목이므로 삭제하여 총 19개 항목이 최종 평가항목으로 선정되었다(표 4 참조).

2) 전문가 중요도 설문조사

상기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평가항목들을 바탕으로 보다 더 체계적인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 검정은 크론바하 알파값이 보통 0.70 이상이면 강한 응집력을 갖는다고 해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768

표 4. 문헌 연구에서의 평가항목

	김혜경 (1997)	김세용과 양동양 (1997)	최희원 등 (2002)	정창구 (2004)	장하리와 이인성 (2006)	김기수 (2008)	우동주 (2008)	호창기 (2008)	김기수와 김중섭 (2010)	채두병 등 (2010)	미국 뉴욕	미국 레드우드 시티	호주 시드니	영국 출리
인근 보도로부터의 인접성*	○		○		○	○	○		○	○				
보도에서의 시각적 식별성*	○		○	○	○	○	○		○	○				
출입의 편리성(출입구 폭)*	○	○		○	○				○	○				
출입의 안전성(단차)*	○	○	○	○	○		○	○	○	○	○	○	○	
출입의 개방성(울타리, 난간)*	○	○	○		○	○		○	○	○	○	○	○	
시설 사용의 편리성		○	○	○	○	○	○	○	○	○				
야간 이용을 위한 조명의 기능성*							○	○		○				
휴지통 등의 시설의 편의성		○		○	○	○				○				
자연요소의 녹음성*	○	○		○	○	○	○			○		○	○	
자연요소의 심미성				○			○							
시설물의 심미성			○					○				○		
바닥포장의 심미성*				○			○	○		○				
조형적 요소(분수, 조각물 등)의 도입*	○						○	○		○				
프로그램(이벤트 등)을 통한 흥미성*	○					○			○					
주변과 시설물의 조화성*		○						○		○				○
휴식공간의 청결성		○			○		○	○	○	○				
이용의 안전성					○		○	○						
교통이나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		○	○			○	○	○	○				
건물 출입구와의 연계성				○	○			○		○				
내부공간과의 연계			○											
규모의 적절함				○										
공공에의 기여도			○											
외부로부터 아름답게 보이는 심미성*		○				○			○					
외부로 향하는 조망성*							○							
장애인의 접근성*											○			
최소 보도폭 확보											○	○	○	○
최소 카페폭 확보											○	○	○	○
인접 카페와의 연계성*											○			
실내 투과성*											○			
실내와의 연계성*											○			
차음 기능성*											○			○
차양 기능성*											○			
시설물 절거성											○	○	○	○

*: 최종 선정된 평가항목

로 기준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19가지 평가항목들은 모두 신뢰성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표 5 참조).

19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를 순위대로 나열하면 표 6과 같은데, 19개 항목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전문가가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표 6 참조). 그 중 상위 3위 항목은 '가로부터의 인접성', '외부로의 조망성', '실내투과성'으로 노천 카페에서 가로를 바라보는 경관과 가로로부터 노천카페를 바

라보는 경관의 상호적인 조망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최종평가틀

(1) 평가항목의 요인분석

문헌분석 및 중요도 설문분석을 통해 도출된 19개의 평가항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자료들을 재

표 5. 신뢰도 분석

구분	Cronbach의 알파	항목수	신뢰성 평가기준
설문항목	.768	19	Cronbach's Alpha >0.70 (신뢰성 있음)

분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KMO(Kaiser Meyer Olkin)값은 0.852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는 0.000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평가항목을 형성하는 요인은 5개의 인자군으로 요약되었는데, 전체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68.731%였으며, 접근성(21.639% 설명력), 심미성(19.438% 설명력), 정체성(11.882% 설명력), 환경성(8.483% 설명력), 문화성(7.288% 설명력)으로 요인의 명칭을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출입의 안전성, 출입의 개방성, 장애인의 접근성, 가로로부터의 인접성, 가로로부터의 식별성, 출입의 편리성, 외부로의 조망성 등 7개 변수들로 구성되어 '접근성' 요인으로 해석하였다. 요인 2는 시설물 조화성, 바닥재 심미성, 자연요소의 녹음성, 조형요소의 예술성 등 4개 변수들로 구성되어 '심미성' 요인으로 해석하였다. 요인 3

표 6.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평균	표준편차
가로로부터의 인접성	3.7451	3.70283
외부로의 조망성	3.7255	.90955
실내 투과성	3.6912	.72637
출입의 편리성	3.5271	.98951
조명 기능성	3.5098	.81977
인접 카페와의 연계성	3.5049	.95267
외부로부터의 심미성	3.5000	.84922
실내 연계성	3.4951	.75111
차양 기능성	3.4363	.78676
출입의 개방성	3.3382	.72676
가로로부터의 식별성	3.3333	.91145
장애인의 접근성	3.3186	.92998
조형요소의 예술성	3.2549	.85997
바닥재 심미성	3.2059	.92751
출입의 안전성	3.1765	.80973
프로그램의 흥미성	3.0980	1.06695
시설물 조화성	3.0686	.97819
자연요소의 녹음성	3.0098	1.05757
차음 기능성	3.0024	.88123

표 7. 평가항목의 요인분석

평가항목	요인적재량				
	요인 1 접근성	요인 2 심미성	요인 3 정체성	요인 4 환경성	요인 5 문화성
출입의 안전성	.831	.077	-.083	-.152	-.109
출입의 개방성	.778	.065	.320	.086	-.006
장애인의 접근성	.712	-.033	-.021	.022	-.188
가로로부터의 인접성	.703	-.034	.349	.139	.259
가로로부터의 식별성	.640	.196	.194	.049	.278
출입의 편리성	.563	.259	.461	.176	.156
외부로의 조망성	.480	.403	.345	-.101	.465
시설물 조화성	.039	.831	.163	.091	.012
바닥재 심미성	.086	.825	.088	.062	.042
자연요소의 녹음성	-.142	.719	.076	.366	-.009
조형요소의 예술성	.228	.718	.327	.071	-.127
실내 연계성	.207	.140	.736	-.088	.280
실내 투과성	.070	.494	.712	.015	-.039
인접 카페와의 연계성	.149	.477	.555	.327	-.293
외부로부터의 심미성	.140	.470	.506	.320	-.390
차양 기능성	.380	.170	.050	.747	.041
차음 기능성	.549	.043	-.310	-.599	.115
조명 기능성	-.083	.352	-.145	.571	.141
프로그램의 흥미성	-.023	-.079	.061	.090	.850
고유값	4.111	3.693	2.258	1.612	1.385
공통분산 %	21.639	19.438	11.882	8.483	7.288
누적비율 %	21.639	41.077	52.959	61.442	68.731
표본적합도(KMO)	0.852				
Bartlett 유의확률	0.000				

은 실내 연계성, 실내 투과성, 인접 카페와의 연계성, 외부로부터의 심미성 등 4개 변수들로 구성되어 '정체성' 요인으로 해석하였다. 요인 4는 차양기능성, 차음기능성, 조명기능성 등 3개의 변수들로 구성되어 '환경성' 요인으로 해석하였다. 요인 5는 프로그램의 흥미성 1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문화성' 요인으로 해석하였다(표 7 참조).

(2) 최종 평가를 도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명명된 요인들을 평가지표, 각 요인별 변수들을 평가항목으로 정리하여 최종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평가지표는 총 5개로서 '접근성', '심미성', '정체성', '환경성', '문화성'으로 구성되며, 각 지표별 평가항목은 표 8과 같다.

3. 유형별 평가

전체 유형의 지표별 평가 결과, 5개 지표의 평균값은 2.79로 3점 보다 낮게 나타나 다소 부정적으로 분석되었다. 각 지표별 평균값은 '정체성' 3.26, '환경성' 3.25, '심미성' 3.16, '접근성' 2.79, '문화성' 1.51 순으로 나타나, '정체성', '환경성', '심미성'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나타냈고, '접근성'과 '문화성'은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나타냈다. 전체 유형의 항목별 평가 결과, 19개 항목의 평균값은 2.97로 3점 보다 낮게 나타나, 지표 평가와 마찬가지로 다소 부정적으로 분석되었다. 각 항목별 평균값은 '실내 투과성' 3.72, '차음기능성' 3.61, '바닥재 심미성'

3.58 순으로 높은 값을 나타낸 상위 3개 항목이었고, '장애인의 안전성'과 '프로그램의 흥미성' 1.51, '출입의 개방성' 1.90 순으로 낮은 값을 나타낸 하위 3개 항목이었다.

유형별 평가결과, 가로돌출형은 '접근성' 3.61, '정체성' 3.56, '환경성' 3.36으로 3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심미성' 2.44, '문화성' 1.00으로 3점 미만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접근성'에서는 모든 항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장애인 안전성' 항목이 1.90으로 특히 낮은 평가결과를 나타냈다. '심미성'에서는 모든 항목이 3점 이하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연요소의 녹음성' 항목이 1.72로 개선이 요구되어짐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정체성'에서 '외부로부터의 심미성' 항목의 2.36이라는 낮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성'에서는 '조명기능성' 항목이 2.45로 점수가 낮았고, '문화성'에서는 '프로그램의 흥미성' 항목이 1.00으로 매우 낮았다.

가로개폐형은 '접근성' 3.36, '정체성' 3.81, '환경성' 3.66으로 3점 이상, '심미성' 2.96, '문화성' 1.57로 3점 미만을 나타냄으로써 가로돌출형과 매우 흡사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접근성'에서는 '장애인의 안전성' 항목이 2.14로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나타냈고, '심미성'에서는 '자연요소의 녹음성' 항목이 2.71로 평가 결과가 낮았는데, 이는 유형의 특성상 필로티하부(건물에 부착된 공간)에 조성됨으로써 자연요소의 도입이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실내조경의 적극적 도입으로 자연요소의 녹음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체성'에서

표 8. 최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접근성	출입의 안전성	• 바닥 단차를 두지 않아 진입이 편리하도록 한다.
	출입의 개방성	•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보도로부터 진입이 자유롭게 한다.
	장애인의 안전성	• 장애인 사용을 위한 안전을 고려한다.
	가로로부터의 인접성	• 가로에서 접근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적극적으로 보행자를 유도한다.
	가로로부터의 식별성	• 보도에서 시각적으로 노천카페임을 식별하기 쉽도록 한다.
	출입의 편리성	• 출입구 폭의 너비를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외부로의 조망성	• 카페 내부에서 보이는 조망이 아름답도록 한다.
심미성	시설물 조화성	• 주변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바닥재 심미성	• 바닥재를 고급화한다.
	자연요소의 녹음성	• 자연요소 도입으로 녹음성을 높인다.
	조형요소의 예술성	• 조형적 요소(조각물 등)를 도입하여 아름답게 한다.
정체성	실내 연계성	• 가로쪽 벽면을 열어 실내공간과의 물리적인 연계성을 높인다.
	실내 투과성	• 카페 내부가 조망되도록 하여 가로에 카페 분위기를 느끼지도록 한다.
	인접 카페와의 연계성	• 인접카페와 연계되도록 한다.
	외부로부터의 심미성	• 가로에서 바라보았을 때 카페가 아름다운 요소가 되도록 한다.
환경성	차양 기능성	• 햇빛을 가려줄 차양시설을 도입한다.
	차음 기능성	• 가로쪽에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아 소음을 최소화 한다.
	조명 기능성	• 야간 이용을 위한 조명을 설치한다.
문화성	프로그램의 흥미성	• 문화 프로그램(이벤트 등)을 도입한다.

는 '외부로부터의 심미성' 항목이 2.14로 가장 낮았고, '환경성'에서는 모든 항목이 양호했으며, '문화성'에서는 '프로그램의 흥미성' 항목이 1.57로 부정적 평가결과를 나타냈다.

혼합입체형은 '접근성' 3.09, '심미성' 3.35, '정체성' 3.96, '환경성' 3.09로 모두 3점 이상을 나타냈고, '문화성'만 1.0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접근성'에서 항목별 점수 격차가 크게 나타나 불안정한 평가 결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출입의 개방성' 항목이 1.00, '장애인의 안전성' 항목이 1.28로 매우 부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심미성'에서는 '자연요소의 녹음성' 항목이 2.42로 평가결과가 가장 낮았고, '정체성'과 '환경성'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문화성'의 '프로그램의 흥미성' 항목은 1.00으로 매우 낮았다.

가로양각형은 '정체성' 3.16, '환경성' 3.33으로 3점 이상을 나타냈으나, '접근성' 1.83, '심미성' 2.83, '문화성' 1.00은 매우 낮게 나타나, 지표별 격차가 크므로 불안정한 평가결과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접근성'에서는 '가로로부터의 식별성' 3.52, '외부로부터의 조망성' 3.33을 제외하고 '출입의 안전성' 1.33, '출입의 개방성' 1.00, '장애인의 안전성' 1.00, '가로로부터의 인접성' 1.33, '출입의 편리성' 1.33 등 5개 항목 모두 1점대로 매우 부정적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가로로부터 시각적인 효과는 좋으나, 물리적인 접근성은 모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심미성'에서는 '자연요소의 녹음성' 항목이 2.66, '조형요소의 예술성' 항목이 2.33으로 낮았고, '정체성'에서는 '실내연계성' 2.66, '인접카페와의 연계성' 2.33으로 낮게 나타나 카페 내부에서의 연계성, 외부로의 연계성 모두 부정적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성'에서는 모든 항목이 양호했고, '문화성'에서는 '프로그램의 흥미성' 항목이 1.00으로 매우 낮았다.

사인제공형은 '심미성' 4.25, '문화성' 3.00으로 3점 이상을, '접근성' 2.07, '정체성' 1.83, '환경성' 2.83으로 3점 이하를 나타내, 나머지 4개의 유형과 매우 다른 양상의 평가 결과로 분석되었다. '접근성'에서는 '출입의 안전성' 4.83을 제외하고 '출입의 개방성' 1.25, '장애인의 안전성' 1.25, '가로로부터의 인접성' 2.50, '가로로부터의 식별성' 2.01, '출입의 편리성' 1.50, '외부로의 조망성' 1.16 등 6개 항목 모두 매우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심미성'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정체성'은 '실내연계성' 2.50, '실내투과성' 1.66, '인접카페와의 연계성' 1.33, '외부로부터의 심미성' 1.83 등 4개 항목 모두 매우 낮게 평가되어 보완이 시급하며, '환경성'에서는 '차양기능성' 1.66과 '조명기능성' 2.50으로 매우 낮았으나, '문화성'의 '프로그램의 흥미성' 항목은 5개 유형 중 유일하게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사인제공형이 비교적 넓은 면적을 활용함으로써 아름답게 공간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한 영화 상영, 쇼핑, 전통소품 감상 등 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나타난

표 9. 유형별 평가점수 평균

구분		가로돌출형		가로개폐형		혼합입체형		가로양각형		사인제공형		평균	
평가지표	평가항목	항목별	지표별	항목별	지표별	항목별	지표별	항목별	지표별	항목별	지표별	항목별	지표별
접근성	출입의 안전성(단차)	4.36	3.61	2.71	3.36	2.55	3.09	1.33	1.83	4.83	2.07	3.156	2.79
	출입의 개방성(난간)	3.00		3.28		1.00		1.00		1.25		1.906	
	장애인의 안전성	1.90		2.14		1.28		1.00		1.25		1.514	
	가로로부터의 인접성	4.54		4.20		4.15		1.33		2.50		3.344	
	가로로부터의 식별성	4.72		4.65		4.85		3.52		2.01		3.95	
	출입의 편리성(폭)	4.25		4.14		3.57		1.33		1.50		2.958	
	외부로의 조망성	2.54		2.42		4.28		3.33		1.16		2.746	
심미성	시설물 조화성	2.72	2.44	3.00	2.96	3.71	3.35	3.00	2.83	3.83	4.25	3.252	3.16
	바닥재 심미성	2.90		3.14		3.71		3.33		4.85		3.586	
	자연요소의 녹음성	1.72		2.71		2.42		2.66		4.16		2.734	
	조형요소의 예술성	2.45		3.00		3.57		2.33		4.16		3.102	
정체성	실내 연계성	3.27	3.56	4.71	3.81	3.42	3.96	2.66	3.16	2.50	1.83	3.312	3.26
	실내 투과성	4.45		4.71		4.14		3.66		1.66		3.724	
	인접 카페와의 연계성	4.18		3.71		3.57		2.33		1.33		3.024	
	외부로부터의 심미성	2.36		2.14		4.71		4.00		1.83		3.008	
환경성	차양 기능성	4.09	3.36	3.00	3.66	3.00	3.09	3.00	3.33	1.66	2.83	2.95	3.25
	차음 기능성	3.54		3.28		3.28		3.66		4.33		3.618	
	조명 기능성	2.45		4.71		3.00		3.33		2.50		3.198	
문화성	프로그램의 흥미성	1.00	1.00	1.57	1.57	1.00	1.00	1.00	1.00	3.00	3.00	1.514	1.51
평균												2.97	2.79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9 참조).

따라서 지표별 평가결과, 가로돌출형과 가로개폐형은 '심미성'과 '문화성', 입체혼합형은 '문화성', 가로양각형은 '접근성', '심미성', '문화성', 사인제공형은 '접근성', '정체성', '환경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성'은 유일하게 사인제공형에서만 긍정적으로 평가된 지표였다. 또한 항목별 평가결과, 가로돌출형은 '장애인의 안전성', '자연요소의 녹음성', '프로그램의 흥미성', 가로개폐형은 '프로그램의 흥미성', 혼합입체형은 '출입의 개방성', '장애인의 안전성', '프로그램의 흥미성', 가로양각형은 '출입의 안전성', '출입의 개방성', '장애인의 안전성', '가로로부터의 인접성', '출입의 편리성', '프로그램의 흥미성', 사인제공형은 '출입의 개방성', '장애인의 안전성', '출입의 편리성', '외부로의 조망성', '실내 투과성', '인접 카페와의 연계성', '외부로부터의 심미성', '차양 기능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좌표파형으로 나타내 시각화 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파형이 크고 좌표의 중앙에 수렴할수록 다양한 항목에서 고르게 평가받은 유형으로 분석되며, 파형이 작고 변형될수록 긍정 혹은 부정적인 지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우상기, 2009). 즉, 혼합입체형이 가장 크고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여 가로활성화 관점에서 바람직한 유형이며, 가로개폐형, 가로돌출형, 가로양각형 순으로 점차 형태가 변형되는 것으로 보아 평가가 점차 낮아지며, 사인제공형은 가장 작고 불안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으로 판단된다(표 10 참조). 지표별 평가결과, '접근성'은 가로양각형, 사인제공형이 평가가 낮았고, '심미성'은 가로돌출형, 가로개폐형, 가로양각형의 평가가 낮았다. '정체성'과 '환경성'은 사인제공형만 평가가 낮아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반면에 '문화성'은 사인제공형만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사인제공형을 제외한 4개 유형 모두에서 '문화성'은 매우 낮은 평가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항목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젊은이의 카페거리인 가로수길과 전통과 예술의 카페거리인 삼청동길에서 젊은이 문화, 전통문화를 카페문화와 접목시킨다면 가로활성화를 증진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안전성'은 모든 유형에서 매우 낮게 평가되어 보완이 시급하며, '자연요소의 녹음성'과 '프로그램의 흥미성'도

사인제공형을 제외한 4개 유형 모두에서 매우 낮게 평가되어 조정적 요소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상업가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노천카페의 유형을 분류하고, 평가항목을 도출한 후, 유형별로 평가·분석함으로써 추후 노천카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가로와의 관계성에 따라 노천카페의 유형을 분류하고 실태를 전수 조사하였다. 평가기준 작성을 위해 문헌 조사와 전문가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기술통계분석과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평가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최종평가틀을 토대로 조경 전문가 4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노천카페의 유형은 가로와의 관계성에 따라 가로돌출형, 가로개폐형, 혼합입체형, 가로양각형, 사인제공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가로돌출형(32.3%)이 가장 많았고, 가로개폐형과 혼합입체형(20.5%), 사인제공형(17.6%), 가로양각형(8.8%) 순이었다.

평가기준 작성을 위해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33개 항목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19개 항목을 선정하고, 전문가 중요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접근성, 심미성, 정체성, 환경성, 문화성 등 5개 요인으로 요약되었고, 이것의 전체 설명력은 68.731%였다. 중요도 평균은 '가로로부터의 인접성', '외부로의 조망성', '실내 투과성'이 상위 3위로 나타남으로써, 노천카페에서 가로를 바라보는 경관과 가로로부터 노천카페를 바라보는 경관의 상호적인 조망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유형의 지표별 평가결과, 정체성(3.26), 환경성(3.25), 심미성(3.16)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접근성(2.79), 문화성(1.51)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항목별 평가결과, 실내 투과성(3.72), 차음기능성(3.61), 바닥재 심미성(3.58) 순으로 높이 평가된 항목이었고, 장애인의 안전성과 프로그램의 흥미성(1.51), 출입의 개방성(1.90) 순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이었다. 이로써 가로 이용자 입장에서의 노천카페 설계요소가 실제 노

표 10. 유형별 지표평가 좌표 파형

천카페 이용자 입장에서의 설계요소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로 이용자가 투과성(porosity) 관점에서 노천카페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받고 노천카페 이용을 시도할 시에, 이용 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낮게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유형별 평가결과, 혼합입체형이 좌표과형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여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가로돌출형과 가로개폐형의 제약사항 즉 가로수길과 삼청동길이 비좁은 보행로로 인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물리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겨난 형태임을 유추할 수 있는데, 특히 건축 초기 계획단계부터 혼합입체형 노천카페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흔적이 보일 만큼 가로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의도의 반영이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인제형은 좌표과형에서 가장 작고 불안정한 형태를 취하여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심미성과 문화성 즉 시각적, 체험적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가로수길과 삼청동길이 주택지역에서 상업가로로 변화하면서 주택의 마당을 노천카페로 개조하여 비교적 넓은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개성 넘치고 아름다운 분위기 조성에 유리할 뿐 아니라, 영화상영, 쇼핑, 전통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젊은이의 카페거리, 전통과 예술의 카페거리를 각각 대표하는 가로수길, 삼청동길에서 젊은이 문화, 전통문화 등 가로의 특징을 반영하는 문화를 카페문화와 접목시킨 것은 가로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로수길과 삼청동길에서 물리적 측면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시각적, 체험적 측면 등에서 가로와의 관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다양한 유형의 노천카페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가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다만 노천카페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전체 유형 또는 각 유형별로 미흡한 항목의 보완을 시도한다면 해외와는 차별화되는 노천카페 거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요구와 관심은 높지만 연구가 미흡한 분야인 노천카페의 유형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기준을 작성하였으며, 전수조사를 통한 유형별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이 유사한 가로수길 및 삼청동길과 같은 소로변의 노천카페에 그친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에는 테헤란로와 같은 대로변의 노천카페, 또는 죽전 카페골목이나 판교 카페골목과 같은 골목 내부의 노천카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소로변, 대로변, 골목 내부의 노천카페의

평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전문가가 평가를 시행하였으므로, 이용자 입장에서의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도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가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가로활성화에 기여하는 노천카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주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주 2.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7690000>
- 주 3. 폴딩도어란 접이식 문을 말하며, 공간 개폐가 90% 이상 가능하여 기존의 창호가 갖고 있는 개폐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주 4. 양각(仰角)이란 올려다본 각을 일컫는다.

인용문헌

1. 김기수(2008) 도시 고층건물내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한 의식 차이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6(2): 111-118.
2. 김기수, 김중섭(2010) 한국, 미국, 일본 청소년들의 도시 고층건축물 내 공개공지의 공공성 평가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8(1): 31-38.
3. 김도경, 김진영(2011)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5): 21-32.
4. 김도년(2011)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도공간의 민간 활용방안. 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
5. 김도년(2012) 노천카페를 활용한 가로활성화 방안. 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
6. 김동찬, 최우영(2013) 가로의 장소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노천카페 설계요소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9(3): 147-154.
7. 김세용, 양동양(1997)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1): 53-68.
8. 김주석, 최장순, 최찬환(2002) 공개공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5): 39-46.
9. 김혜경(1996) 공개공지 조성 및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박태희, 서주환(2005) 환경조형물의 시각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pp. 10-16.
11. 송호진(2008) 도시가로시설물의 정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엄봉훈(2011) 대형건축물 공개공지의 조성 및 관리실태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9(6): 36-45.
13. 우동주(2008) 도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의 설계 지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1): 117-124.
14. 우상기(2009) 보행자 중심의 도시가로경관 평가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2): 275-284.
15. 이나영(2002) 도심지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의 개선방향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이득구(2004) 걷고 싶은 거리의 보행환경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이승희(2007) 건물전면공지 간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장광집(2010) 도시관문의 가로시설물 배치와 디자인 현황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1(3): 411-424.
19. 조원석(2009) 공공디자인의 가로시설물에 대한 해외사례의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1(3): 11-18.
20. 장하리, 이인성(2006) 공개공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7(4): 47-61.

21. 정창구, 김홍규, 김기수(2008) 조성위치에 따른 도시 고층사무소건축물 공개공지의 공공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5): 201-210.
22. 차호철, 박철민(2011) 뉴욕 활성화 상업가로의 물리적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6): 39-46.
23. 채두병, 이주형, 송희열(2010) 공개공지의 질적수준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중요 설계요소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3): 95-104.
24. 최희원, 배현진, 이상호(2002) 건축설계 전문가의 의식 조사를 통해 본 공개공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0): 175-182.
25. 호창기(2008) 도시 공개공지 유형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Nan Ellin(2006) Integral Urbanism. New York: Routledge.
27.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7690000>

원 고 접 수 일: 2012년 12월 18일
 심 사 일: 2013년 1월 28일(1차)
 2013년 4월 16일(2차)
 게 재 확 정 일: 2013년 4월 22일
 3 인 의 명 심 사 필